



■ 8년 동안의 정책연구 자료 모음,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자료실」 공개 (2016.05.09.)

8년 동안의 정책연구 자료를 한곳에 모아,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 ▲ 지난 2009년 4월 6일, 민간 최초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에서 정책대안연구소(이하 연구소) 출범.
- ▲ 연구소는 교육 관련 보도자료, 성명서, 논평 등의 발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8년 동안 질적·양적으로 성장. 이에 방대해진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교육걱정 블로그 (<http://blog.naver.com/noworry21>)내에 「정책자료실」을 구축하기로 함.
- ▲ 「정책자료실」은 자료검색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행교육규제법’, ‘영유아 사교육’, ‘학교체제/교육과정’, ‘대학입학전형’, ‘대학체제’, ‘채용시장/진로’, ‘영어 사교육’, ‘수학 사교육’, ‘사교육 시장’, ‘교사’,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고, 일자순으로 정리.
- ▲ 또한, 연속 토론회·보도자료의 경우, 한 개의 글에서 해당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하여, 연계되는 자료를 활용하기 쉽도록 함.

지난 2009년 4월 6일, 민간 최초로 출범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교육 관련 성명서, 논평, 조사·분석 자료 등을 발표하고,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8년 동안 질적·양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생산한 자료는 사교육걱정 공식카페(<http://cafe.daum.net/no-worry/>) [우리가 낸 보도/소식]에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역이 세분화되고 영역별 자료가 많아지면서,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는 점에 착안, 시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방대해진 정책연구 자료를 정리할 필

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3년에 「2009~2013년 정책대안연구소 설문조사 모음집」을 제작하고, 2014년에는 「교육통계센터 블로그(<http://data.noworry.kr/>)」를 기획·구성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해 현재까지 관리·운영해온 경험을 토대로, 연구소 「정책자료실」을 온라인에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 초반에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관리·운영해야 하는 홈페이지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사교육걱정 블로그 내에 「정책자료실」 카테고리를 삽입하여 정책연구 자료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정책자료실」은 ‘선행교육규제법’, ‘영유아 사교육’, ‘학교체제/교육과정’, ‘대학입학전형’, ‘대학체제’, ‘채용시장/진로’, ‘영어 사교육’, ‘수학 사교육’, ‘사교육 시장’, ‘교사’,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8년 동안의 자료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에 일자를 삽입하는 등, 자료 검색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그림 1 참고).



[그림 1] 정책자료실 정책연구 자료 목록 예시

사교육걱정 블로그(<http://blog.naver.com/noworry21>) > 정책자료실 > 선행교육 영역

또한, 연속 토론회·보도자료의 경우, 한 개의 글에서 해당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하여, 연계되는 자료를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그림 2 참고). 관련 자료는 삽입된 이미지나 표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로 한글 파일(*.hwp)을 첨부하였으나, 용량 문제로 PDF 파일을 첨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교육걱정 대표 메일 (noworry@noworry.kr)로 신청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고자 합니다.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및 대안 5회 연속 토론회 중 2차 토론회 결과보고(2014.06.09.)

대기업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은 아직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5월 27일(화)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2차로 '대기업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 ▲여러 가지 법안에서 기업 채용 시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업의 실제 선발과정, 특히 1차 서류전형에서는 여전히 학력·학벌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대기업에서는 채용 후 승진 시에는 학력·학벌 보다는 능력과 헌신도와 같은 개인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됨
- ▲개선과제로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주기적으로 기업의 채용시장 관련 데이터를 받아 실태를 분석 발표해야, △직무연관성을 채용 기준으로 삼아야, △기준 공채방식에서 벗어나 수시채용을 확대해야, △차별관련 법안들이 구체적이고 현실화되어야 함 등이 있음
- ▲3차 토론회는 6/10(화) 오후 3시에 '공공기관 채용 시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는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임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차 토론회 보도자료_20140609.hwp



2차 토론회 자료집_20140527.hwp



[그림 2] 정책자료실 정책연구 자료 중, 연속토론회 게시물 예시

사교육걱정 블로그(<http://blog.naver.com/noworry21>) > 정책자료실 > 채용시장/진로 영역
<2014.05.13.~07.08.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5차 토론회) 중>

향후, 온라인에서의 자료 정리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자료 정리도 완료할 예정이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자료실」을 활발하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 5.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 (02-797-4044/내선번호 509)
행정지원팀장 민유리 (02-797-4044/내선번호 505)